

“제주 제2공항 도민 선택 적극 지원”

문 대통령, 19일 국민과의 대화서 질의에 답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면서도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반환점을 지나며 마련한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패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마지막 질문자로 지목된 국민패널은 “제주도는 제2공항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미 원전 갈등을 해결 할 때 공론화로 해결하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도정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공론화를 하면 주민갈등이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다. 우리 제주도는 이미 강정 해군기지 때부터 많은 혼란을 겪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 생각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강정마을 문제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보상방안들도 정부가 다 수용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아마도 지금 제주에서 가장 큰 갈등사안은 제2공항 문제일텐데 사실은 정부가 그 문

제에 기존의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을 마련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선택은 주민들의 결정에 맡긴 것이고, 일단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제2공항에 대해서 현지의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패널은 “찬반은 언제든 어디서든 다 존재하는데 도민들이

찬성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한 번 공론화해서 추진해야 대통령님이 공약하신 철학적 정당성에도 맞고 그에 따라 갈등도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공론화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지금 제주 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여서 제주도의 발전이라든지 제주도민들의 이동권을 위해서도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부미연기자 bu8385@halla.com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2019 블록체인 인 제주’ 내달 9일 제주 칼호텔서 진행

블록체인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인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도는 다음달 9일 제주 칼호텔에서 ‘2019 블록체인 인 제주’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블록체인과 함께하는 제주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도민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산업별 시너지와 미래예측을 기초강연이 진행되며, 공공·민간분야에서 추진되는 블록체인 서비스 사례도 제공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업들의 홍보 부스와 전자지갑 및 스탬프 체인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문의는 행사 사무국(064-735-1082),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2공항 기본계획 조속히 고시를”

제주도, 국토교통부에 공항 기본계획 고시 건의

제주자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2공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공언함에 따라 20일 국토교통부에 공항 기본계획의 조속한 고시를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날 ‘2019 국민과의 대화’ 중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대통령님 말씀에 대한 입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민들의 제2공항 선택’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공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기존 제주공항의 완전 포화뿐만 아니라 제주발전, 도민 이동권을 위해 제2공항과 같은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제2공항은 도민 선택의 결과라는 대통령의 얘기는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제2공항과 관련한 수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 설명회 등

의 방법으로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다. 제주도 역시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의견을 존중해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재조사와 재검증까지 국토부에 권고하고, 실시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공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과정도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미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 그리고 설명회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접수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감안해 조속히 기본계획을 고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도의회 제378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요지(질의 순)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부지 전환 견해는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도시위원회)=영어교육도시 내 학교부지 전환에 대한 견해와 활용 방안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 학교 피해와 지역 정주여건 악화 등에 대한 대응은,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은.



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한 입장은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안전위원회)=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를 위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제공에 대한 견해는, 학급 수 증가로 교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제주영지학교의 교육 시설 확충 계획은, 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은.



제주의고 일반고 전환 계획은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교육부의 2025년 특수목적고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과 관련한 제주도 교육청의 제주의고이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학생 비만을 증가에 따른 대책과 방안은, 놀 권리 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정책은

▶김창식 의원(교육의원, 교육위원회)=제주지역 학생들의 기초, 기본학력 정책과 향상을 위한 정책은, 도내 학교 폭력, 학생 중독, 학교 밖 청소년 증가와 관련한 인성교육 정책 방향은, IB교육 과정 도입에 따른 의견 수렴 등 진행 과정은.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은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농수축경계위원회)=도내 폐교 등 교육재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학생 생활과 진로 지도, 인성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읍면학교에 최소 2년의 담임 연임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도내 학생들의 정신건강 적신호에 대한 문제 진단과 대책은.



학교복합화 시설에 대한 견해는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관광체육위원회)=학교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장기적 계획은, 탐라교육원 야영장이 기능을 상실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은, 등하굣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복합화 시설에 대한 견해는.



교육균형을 위한 정책의 효과는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농수축경계위원회)=교육감의 공약인 교육균형을 위한 정책의 효과는, 교육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 소극적인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 학생문화원 야외공연장을 일자리 카페로 운영할 의향은, 올해 예정된 기적의 놀이터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IB 읍면 고교 대상 시행 우려는

▶강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IB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해 읍면 고교로 교육의 실태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올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교육 중점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은,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성과없는 국립해사고 논의, 향후 계획은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국립해사고 논의가 5년 동안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인사혁신처가 미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의 소수직렬 통합 방안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청렴도 회복을 위한 준비와 노력은



제주형 교육정책 요구에 대한 계획은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도시위원회)=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관련해 미래지향적인 제주형 교육 정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학교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은, 특성화고보다 일반고의 학업중단자 수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자랑스런 제주경영인 대상 공모

1. 제정취지 및 목적

제주경영자총협회는 매년 제주 경제발전과 협력적 기업 노사문화 창달에 기여한 경영인을 선정, 시상하고 있음 제주 경제발전과 기여한 경영인을 선정 격려함으로써 경영자로서의 자긍심과 노사 상생의 협력적 토양 조성 능력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기업문화 실천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2. 선정원칙

- 인간존중과 인재육성 노력을 중심으로 협력적 기업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열린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인
- 다양한 경영혁신활동 실천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는 기업인
- 지역사회 발전 공헌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윤리적 기업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인

3. 심사항목

○ 심사항목은 인간존중 및 인재육성, 경영혁신, 사회공헌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됨

평가영역	평가항목
인간존중 / 인재육성	- 노사협력프로그램 / 복지제도 - 임직원 교육·훈련 - 산업재해 예방 노력
경영혁신	- 일자리 창출 - 생산성 / 품질 향상 - 기업 성장성
사회공헌	-지역사회에 기업 및 임직원 사회공헌 및 봉사

4. 제출서류 및 공적서 작성요령

■ 제출서류

- 1) 자랑스런 경영인 대상 신청서 1부, 2) 공적서 1부, 3) 공적서 요약본 1부

■ 공적서 작성요령

- 1) 공적서는 A4크기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며, 양식과 분량제한은 없음.
- 2) 공적서의 내용은 최근 4~5년 이내의 내용 및 실적을 영역별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이전의 내용과 실적을 제시할 수 있음.
- 3) 공적서 내용을 증명할 기타 증빙자료(행사사진, 언론보도, 표창사본 등)를 해당 공적 내용과 함께 첨부.
- 4) 요약본은 5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5. 진행과정

- 1) 신청서 및 공적서 제출 : 2019. 11. 25.~12. 5.
- 2) 심 사 : 경영계,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3) 시 상 : 2019년 12월 19일(제주경총 송년행사시 시상) 예정 (* 심사 및 시상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
- 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공적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cea21@hanmail.net) 송부 (* 제출서류 양식은 본회 사무국에서 제공)
- 5) 문 의 : 제주경영자총협회 사무국(TEL 751-2205~6)

제주경영자총협회

제3회 제주 혼디손심영 합창단 정기연주회 초청안내



제주지역 남·북한 지역 도민으로 구성된 “제주 혼디손심영 합창단”이 2019년 정기연주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자랑! 먼저은 통일 합창단 공연에 지역도민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나센터장

일시 2019년도 11월 23일(토) 저녁 7시

장소 한라아트홀 소극장 (한라대학교 내)

■ 참석대상 : 제주도민 누구나

■ 내 용 : • 북한 및 남한의 가곡과 가요 등 합창곡 연주
• 콰트로보체(Quattro Voce), 제주올레 오카리나 앙상블 초청공연

■ 입 장 료 : 무 료

※ 참석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예정(선착순)

주 관 제주하나센터

후 원 통일부, Jeju, 제주특별자치도, 남북하나재단

문 의 : 723-2124 (제주특별자치도 하나센터)